

2021년 2월 1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금리 상승과 비트코인 이슈로 혼조

미 10년물 국채금리 1년내 최고, 비트코인 한 때 5만달러 상회

미 증시 변화 요인: 금리와 비트코인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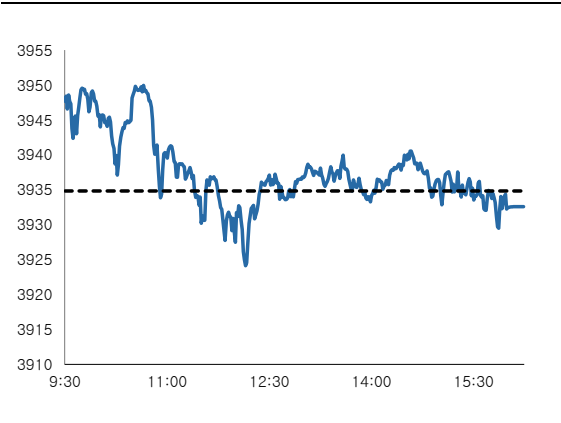
미 증시는 추가 부양책 기대로 상승 출발했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산되며 미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하락 전환.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하락이 특징. 더불어 한 때 5만달러 넘어서던 비트코인의 변화도 관련 종목의 등락을 이끌며 지수 변동성을 확대 하게 만들. 이후 시장은 보험권에서 업종별 등락을 거듭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다우 +0.20%, 나스닥 -0.34%, S&P500 -0.06%, 러셀 2000 -0.72%)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0bp 넘게 상승한 1.3%를 상회. 작년 연말까지 1% 미만에서 등락을 보였으나 올해 들어 30bp 넘게 상승하는 등 그 폭이 확산 되고 있음.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 정상화와 1.9 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처리 기대, 상품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유입되며 상승세가 확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이 여파로 금융주는 강세를 보였으나, 일부 기술주와 제약, 바이오 등 성장주는 물론 이자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일부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나스닥과 러셀 2000 지수가 하락 전환 하는 등 변동성 확대

한편, 비트코인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스트레티지(-7.67%)가 전환사채 발행 해 비트코인을 매수 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장 시작 전 5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쏠림 현상이 강화. 그러나 지난 주 후반부터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장중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 최근 라가르드 ECB 총재와 엘런 재무장관 등이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정책 당국의 움직임이 부각 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러한 가격 움직임은 장 초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던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의 변화를 이끌며 변동성 확대.

결국 시장은 국채금리 상승과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한. 특히 금리 상승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자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성장주에 대한 매물 출회가 이어졌으며, 반대로 금융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업종 차별화가 진행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3,163.25	+0.52	홍콩항셱	30,746.66	+1.90
KOSDAQ	977.74	-0.43	영국	6,748.86	-0.11
DOW	31,522.75	+0.20	독일	14,064.60	-0.32
NASDAQ	14,047.50	-0.34	프랑스	5,786.53	+0.00
S&P 500	3,932.59	-0.06	스페인	8,153.70	-0.61
상하이종합	3,655.09	휴장	그리스	795.91	-0.06
일본	30,467.75	+1.28	이탈리아	23,440.81	-0.6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비트코인 관련주, 금융주 상승 Vs. 제약, 바이오, 일부 기술주 부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스트레티지(-7.67%)가 전환사채를 발행해 그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매수 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하락 했다. 이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한 때 5만 달러를 상회했다. 그러자 페이팔(+2.15%), Nvidia(+2.47%), 올트 글로벌(+10.25%), 라이엇 블록체인(+20.74%) 등이 상승 했다. 테슬라(-2.44%)도 상승 출발 후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퍼스트솔라(-2.02%), 선파워(-6.56%) 등 태양광 업종은 수익 감소 전망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퀀텀스케이프(-7.32%)는 자동차 부품사인 보그워너(+4.26%)가 경쟁사인 독일 배터리 회사인 아카솔(-0.91%)을 인수한다고 발표 하자 급락했다. 실적 발표 후 시간 외에는 11% 넘게 상승 중이다.

국채금리가 1년내 최고치를 기록하자 JP모건(+2.41%), BOA(+2.70%) 등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국제유가가 60달러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자 엑손모빌(+3.01%), 코노코 필립스(+3.58%) 등 에너지 업종도 상승했다. 경제 정상화 이슈가 부각되자 카니발(+9.08%) 등 크루즈 여행 업종은 물론 광고 수익 증가 가능성이 높아진 트위터(+2.87%), 알파벳(+0.75%) 등도 상승했다. 반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CVS헬스(-4.96%)는 물론 월 그린 부츠(-2.46%) 등 약국 체인점은 아마존(-0.27%), 타겟(-0.08%), 월마트(+0.82%) 등과 경쟁 심화 가능성이 부각되며 하락 했다. 애플(-1.61%)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애플카 관련 협상에 대해 외면 받자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36%	대형 가치주 ETF(IVE)	+0.21%
에너지섹터 ETF(OIH)	+3.12%	중형 가치주 ETF(IWS)	+0.11%
소매업체 ETF(XRT)	-0.42%	소형 가치주 ETF(IWN)	+0.23%
금융섹터 ETF(XLF)	+1.71%	대형 성장주 ETF(VUG)	-0.41%
기술섹터 ETF(XLK)	-0.32%	중형 성장주 ETF(IWP)	-0.9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03%	소형 성장주 ETF(IWO)	-1.45%
인터넷업체 ETF(FDN)	-0.00%	배당주 ETF(DVY)	+0.91%
리츠업체 ETF(XLRE)	-1.07%	신흥국 고배당 ETF(DEM)	+0.79%
주택건설업체 ETF(XHB)	-2.3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8%
바이오섹터 ETF(IBB)	-2.17%	미국 국채 ETF(IEF)	-0.72%
헬스케어 ETF(XLV)	-0.99%	하이일드 ETF(JNK)	-0.22%
곡물 ETF(DBA)	+1.62%	물가연동채 ETF(TIP)	-0.49%
반도체 ETF(SMH)	+0.61%	Long/short ETF(BTAL)	-1.52%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42.57	+2.26%	+2.41%	+6.20%
소재	466.19	-0.19%	+0.08%	-1.66%
산업재	762.36	-0.05%	+0.46%	+1.50%
경기소비재	1,362.49	-0.44%	-2.07%	+2.66%
필수소비재	674.05	-0.17%	-0.72%	-0.25%
헬스케어	1,351.99	-1.02%	+0.18%	-0.83%
금융	532.19	+1.77%	+2.55%	+3.66%
IT	2,427.32	-0.30%	+0.95%	+8.32%
커뮤니케이션	238.55	+0.42%	+1.37%	+11.76%
유틸리티	313.75	-1.14%	-2.15%	-2.06%
부동산	236.33	-1.07%	-0.18%	+4.4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수급 동향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1% 하락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 는 0.24% 상승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08.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반도체 및 쿠팡 관련 종목들의 변화가 지속되며 상승 마감 했다. 다만, 유럽 증시가 경제 정상화 등을 기반으로 강세를 보이자 상승 출발 했으나 인플레이 압력이 확산된 데 따른 매물 소화 과정도 지속돼 하락 하는 등 변화를 보인 점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인플레이 압력에 따른 미 국채 금리 상승은 오늘 미 증시 또한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특히 미 10 년물 국채금리가 1.3% 넘게 상승하는 등 그 폭이 확산되고 있어 오늘 한국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 증시에서 제약 바이오 및 일부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은 점은 부담이다. 이를 감안 그동안 상승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수급적으로도 미 국채 금리 상승은 외국인의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어 한국 증시에서 매도 가능성을 높인다. 물론, 연준이 지속적으로 온건한 통화정책을 선호하고 있어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1% 내외 하락 출발 후 외국인 수급 동향에 따라 지수 방향성이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 수혜 업종과 기술주의 차별화가 진행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유럽 경제지표 개선

2 월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전월(3.5)은 물론 예상(5.7)을 크게 상회한 12.1 을 기록했다. 세부 항목은 신규수주가 6.6 에서 10.8 로, 고용지수는 11.2 에서 12.1 로 재고 지수가 -0.7 에서 6.5 로 개선된 반면, 출하지수는 7.3 에서 4.0 으로 하락했다.

독일 ZEW 경기 기대 지수는 전월(61.8)이나 예상(59.7) 보다 개선된 71.2 로 유럽 ZEW 경기 기대 지수 또한 전월(58.3)이나 예상(59.2) 보다 개선된 69.6 으로 발표되었다.

유로존 GDP 성장률은 속보치 였던 전분기 대비 -0.7% 보다 소폭 상향된 전분기 대비 -0.6%로 예상(-0.7%)를 상회 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미 10년물 국채금리 1.3% 상회

국제유가는 텍사스 지역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일부 유정이 폐쇄 되는 등 공급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60 달러를 상회했다. 다만, 전일 시간 외로 관련 내용이 알려지며 반영이 된 점을 감안 장중에는 변화가 제한 되었다. 한편, 난방을 위한 수요로 난방유가 2%, 천연가스가 7% 넘게 급등한 점도 특징이다.

달러화는 미국 경제지표 개선 및 연준위원들의 발언으로 강세를 보였다. 특히 경제 정상화 기대가 높아지자 엔화의 약세폭이 확대된 점이 달러 강세에 영향을 줬다. 파운드화는 영국 백신 접종 속도 확대 등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으며, 유로화는 경제지표 호전에도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며 소폭 약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 환율은 0.3% 약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호전과 인플레이 압력이 높아지자 10년물 금리가 1.3%를 상회하는 등 1년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지금은 인플레이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라고 언급 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등은 여전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언급해 단기금리의 경우 상승폭은 제한 되었다.

금은 금리 상승 영향으로 1,800 달러를 하회하며 1.3%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니켈이 1% 넘게 상승한 반면 아연은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으나 대체로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다. 대두, 옥수수 등 곡물은 인플레이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헤지펀드들의 선물 옵션 매수세 유입으로 2%대 상승했다. 한편, 브라질 대두 수확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0.05	+0.98	+3.59	Dollar Index	90.567	+0.10	+0.14
브렌트유	63.35	+0.08	+3.70	EUR/USD	1.2107	-0.18	-0.10
금	1,799.00	-1.33	-1.92	USD/JPY	106	+0.59	+1.35
은	27.325	-0.01	-0.91	GBP/USD	1.3904	+0.01	+0.63
알루미늄	2,086.50	+0.14	+1.58	USD/CHF	0.8926	+0.26	+0.03
전기동	8,405.50	+0.14	+3.17	AUD/USD	0.7754	-0.35	+0.19
아연	2,827.50	-0.53	+4.90	USD/CAD	1.2692	+0.42	-0.01
옥수수	549.75	+2.47	-2.18	USD/BRL	5.3779	-0.14	+0.00
밀	661.50	+3.16	+0.30	USD/CNH	6.4263	+0.32	+0.09
대두	1,385.75	+1.06	-0.02	USD/KRW	1100.10	-0.12	-2.10
커피	126.20	+2.56	-0.04	USD/KRW NDF1M	1108.75	+0.58	-0.21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307	+9.91	+15.05	스페인	0.293	+3.50	+16.40
한국	1.845	-2.00	+6.30	포르투갈	0.185	+3.70	+12.40
일본	0.085	+0.40	+1.20	그리스	0.767	-0.10	-0.40
독일	-0.348	+3.30	+9.80	이탈리아	0.570	+4.40	+5.8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